보도자료 Press Release

대구기상대 Daegu Weather Station

배포일시	2013. 10. 14.(월) 10:00 (총 5매)	보도시점	즉시		
담당부서	대구기상대	담 당 자	대장 이 명 수	전화번호	053-952-0366

‹ 대구·경북 1개월(10월 하순~11월 중순) 기상 전망 ›

—맑고 일교차가 큰 날이 많겠으며, 기온변화가 크겠음 —

【 1개월(10월 하순~11월 중순) 전망 요약】

순	평 균 기 온	강 수 량
10월 하순	평년(10~15℃)과 비슷하겠음	평년(11~18㎜)과 비슷하겠음
11월 상순	평년(8~13℃)보다 높겠음	평년(13~17㎜)과 비슷하겠음
11월 중순	평년(5~10℃)과 비슷하겠음	평년(9~20㎜)과 비슷하겠음

1. 날씨 전망

○ **(10월 하순)** 이동성 고기압과 저기압의 영향으로 날씨의 변화가 잦겠음. 기온과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겠음.

○ **(11월 상순)**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자주 받아 일교차가 큰 날이 많겠으며, 대구·경북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올 때가 있겠음.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으며,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겠음.

○ **(11월 중순)** 이동성 고기압과 저기압의 영향을 받겠으며, 일시적인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때가 있겠음. 기온과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겠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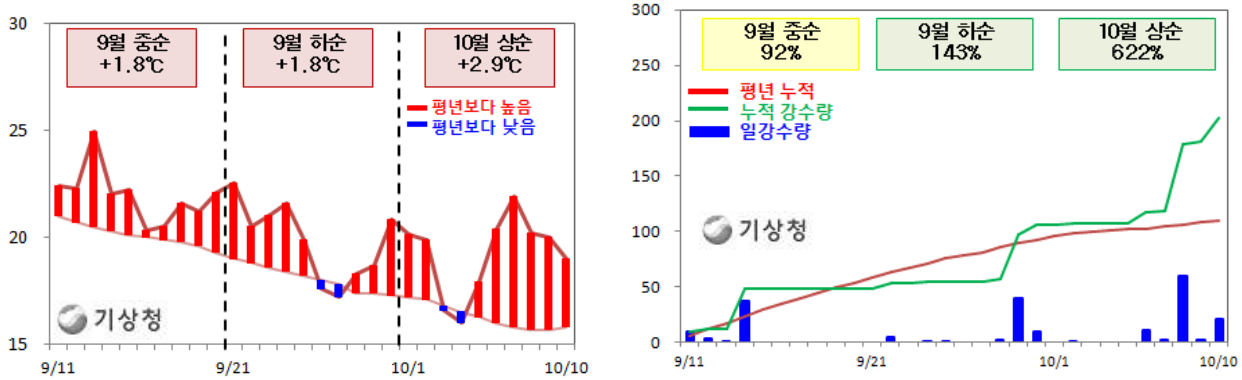
2. 최근 날씨 동향

○ (9월 중순) 전반에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흐리고 비가 오는 가운데 일시적으로 확장한 북태평양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남쪽으로부터 따뜻한 공기가 유입되어 기온이 크게 올랐으며, 후반에는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아 낮 동안에는 더운 날씨를 보였음. 11~12일에는 서쪽에서 다가오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비가 내렸으며, 13~14일에는 기압골 영향으로 많은 비가 내렸음. 기온은 21.9℃로 평년(20.1℃)보다 높았으며(평년대비 +1.8℃), 강수량은 48.8㎜로 평년(55.3㎜)과 비슷했음(평년대비 92%).

○ (9월 하순) 전반에는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일사로 인해 낮 기온이 크게 올랐으나, 26~27일에는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받는 가운데 상층 한기의 유입과 복사냉각이 더해져 기온이 일시적으로 하강하였음. 22일에는 동풍의 영향으로 경북동해안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렸으며, 24~25일에는 북쪽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비가 내렸음. 28~29일에는 서쪽에서 다가오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대구·경북 대부분지방에 많은 비가 내렸음. 기온은 19.8℃로 평년(18.0)보다 높았으며(평년대비 +1.8℃), 강수량은 57.4㎜로 평년(40.8㎜)보다 많았음(평년대비 143%).

○ (10월 상순) 전반에는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날이 많았고, 후반에는 태풍과 기압골의 영향으로 비가 오는 날이 많았음. 5~7일에는 날씨가 흐린 가운데 태풍 전면에서 난기가 유입되면서 최저기온도 떨어지지 않아 기온이 큰 폭으로 상승하였음. 1~2일에는 남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 받아 대구·경북 대부분 지방에 비가 내렸으며, 6~7일에는 동풍의 영향으로 경북동해안지방에 비가 내렸음. 8일에는 제24호 태풍 다나스(DANAS)의 영향, 10일에는 남쪽을 지나는 기압골 영향으로 대구·경북지방에 많은 비가 내렸음. 기온은 19.2℃로 평년(16.3℃)보다 높았으며(평년대비 +2.9℃), 강수량은 95.6㎜로 평년(15.1㎜)보다 많았음(평년대비 622%).

○ (최근 1개월, 9.11~10.10) 평균기온은 20.3℃로 평년(18.2℃)보다 높았으며(평년편차 +2.1℃), 강수량은 201.9㎜로 평년(110.5㎜)보다 많았음(평년대비 183%).



[그림] 최근 1개월 평균기온(좌)과 강수량(우)의 일변화(2013.9.11.~10.10)

※ 첨부자료

1. 최근 10년간의 대구·경북지방 기후 특성(10월 하순~11월 중순)
2. 최근 10년간의 대구·경북지방 특이기상(10월 하순~11월 중순)

【 알림 】

○ 1·3개월 전망 전문은 "기상청 홈페이지→날씨→특보·예보→장기예보"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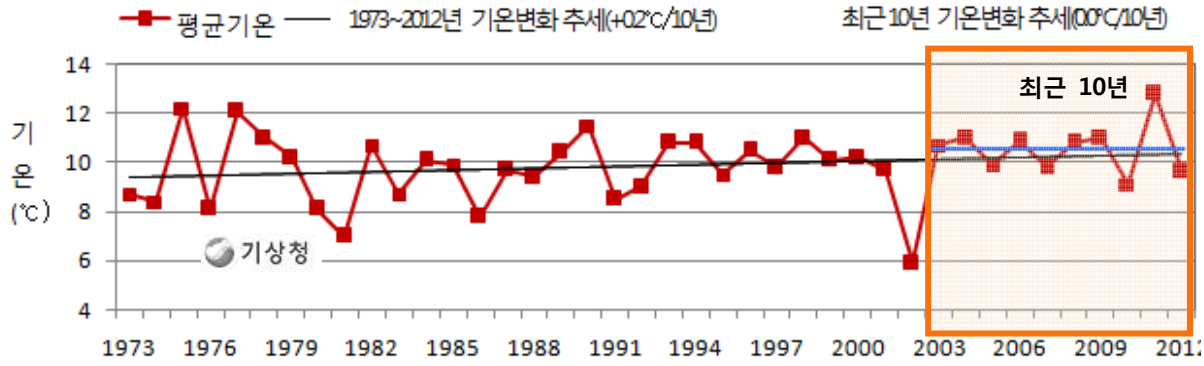
○ 다음 1개월 전망은 2013년 10월 23일 오전 10시에 발표될 예정입니다.

[첨부 1] 대구경북 최근 10년간의 날씨특성(10월 하순~11월 중순)

○ 기온

– 최근 10년 평균기온은 10.6℃로 평년(9.8℃)보다 0.8℃ 높았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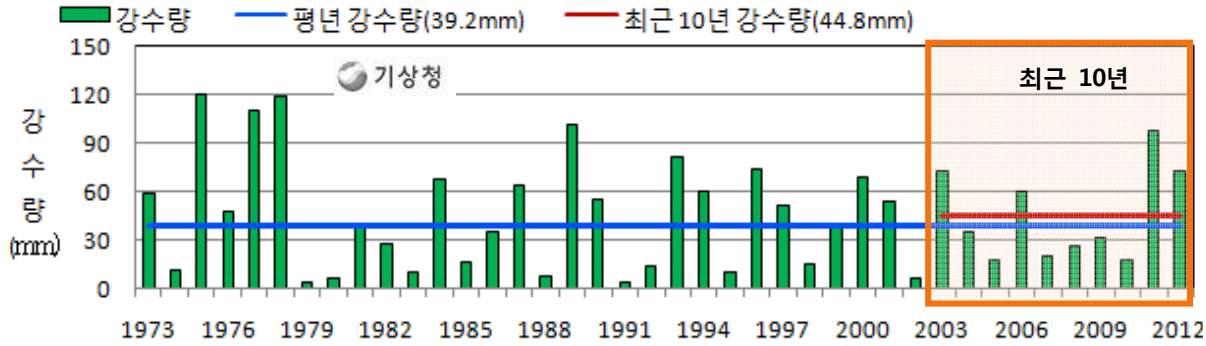
※ 최근 10년 평균기온 변화 추이(℃/10년) :+0.2(10월 하순 : +1.3, 11월 상순 : -0.8, 11월 중순 : -0.7)



연도별(1973-2012) 평균기온(10월 하순~11월 중순)

○ 강수량

– 최근 10년 강수량은 44.8㎜로 평년(39.2㎜) 대비 114%를 기록하였음.



연도별(1973-2012) 강수량(10월 하순~11월 중순)

○ 순별 최근 10년 평균 기후값

기후 요소	단위	10월 하순	11월 상순	11월 중순
평균기온 (평년편차)	℃	12.6(+0.7)	11.6(+1.5)	7.3(0.0)
평균 최고 / 최저 기온	℃	19.1 / 7.1	17.8 / 6.3	13.2 / 2.1
강수량 / 강수일수	㎜ / 일	18.8 / 2.0	15.1 / 2.3	10.9 / 1.8
일조시간	시간	67.8	54.5	59.2
일교차 10℃ 이상 일수	일	7.4	6.3	6.1
일최저기온 0℃ 미만 일수	일	0.5	0.9	3.4

* 대구, 경북(울진, 포항, 영주, 문경, 영덕, 의성, 구미, 영천) 9개 지점 평균임.

[첨부 2] 대구경북 최근 10년간의 특이기상(10월 하순~11월 중순)

○ 고온현상

- (2011년 11월 상순~중순) 남쪽의 고온 다습한 기류가 지속적으로 유입되어 평균기온, 평균 최고기온, 평균 최저기온이 1973년 이래 가장 높았으며, 특히 2~5일 전국적으로 평균 최고기온이 평년보다 2~9℃ 가량 높아 11월 일최고기온 극값을 경신한 곳이 많았음. 고온 지속으로 일부 지역에서는 일찍 파종한 사료작물의 웃자람이 발생하였음.

  * 2011년 11월 상순~중순 : 평균기온 12.9℃, 평년편차 +4.2℃, 1973년 이래 최고 1위
    평균 최고기온 17.8℃, 평년편차 +2.8℃, 1973년 이래 최고 1위
    평균 최저기온 8.9℃, 평년편차 +5.7℃, 1973년 이래 최고 1위
  * 11월 최고기온 최고 1위 경신 : 안동 25.1℃(3일), 상주 25.2℃(5일), 봉화 24.4(℃5일),
    영주 24.5℃(5일), 문경 24.6℃(5일)
  * 11월 평균기온 최고 1위 경신 : 대구 20.2℃(4일), 영주 19.0℃(5일), 문경 19.0℃(5일),
    의성 19.2℃(5일), 구미 18.9℃(4일), 영천 18.6℃(5일)

- (2009년 10월 하순~11월 상순)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과 따뜻한 남서기류의 유입으로 평균 최고기온이 1973년 이래 두 번째로 높았음. 난방용품의 판매 증가율이 둔화된 반면, 모기 퇴치용품 등의 여름 제품이 인기가 있었음.

  * 2009년 10월 하순~11월 상순 : 평균기온 13.5℃, 평년편차 +2.5℃, 1973년 이래 최고 3위
    평균 최고기온 20.4℃, 평년편차 +2.6℃, 1973년 이래 최고 2위
    평균 최저기온 7.6℃, 평년편차 +2.3℃, 1973년 이래 최고 4위

- (2005년 11월 상순)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고 건조한 날이 많았으며, 낮 기온이 크게 올라 평균 최고기온이 1973년 이래 네 번째로 높았음.

  * 2005년 11월 상순 : 평균 최고기온 19.2℃, 평년편차 +2.5℃, 1973년 이래 최고 4위
  * 11월 최고기온 최고 4위 경신 : 영천 24.7℃(4일)

○ 저온현상

- (2010년 10월 26일~29일) 대륙고기압이 확장하여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4일간 추위가 이어졌음. 대구·경북 대부분 지역에서 첫얼음과 첫서리가 관측되었고, 저온현상으로 양봉농가가 피해를 입었으며, 봄철의 이상저온과 여름철 고온에 이어 가을철 저온 현상까지 나타나 벼 수확량과 품질이 크게 저하되었음.

  * 2010년 10월 26~29일 : 평균기온 7.6℃, 평년편차 –4.0℃, 1973년 이래 최저 3위
    평균 최고기온 14.1℃, 평년편차 –4.5℃, 1973년 이래 최저 3위
    평균 최저기온 1.2℃, 평년편차 –4.5℃, 1973년 이래 최저 1위
  * 10월 최저기온 최저 1위 경신 : 문경 –4.0℃(27일)

○ 많은 비

– (2009년 11월 8일) 기압골의 영향으로 대구, 경북 지방에 비가 내렸으며, 문경, 영주 등 경북북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렸음.

* 2009년 11월 8일 일강수량(㎜) : 문경 38.0, 영주 30.5 등

– (2006년 10월 23~24일) 한기를 동반한 저기압이 동해상에서 크게 발달하면서 강풍과 함께 경북동해안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렸음.

* 2006년 10월 23일 최대순간풍속(㎧) : 울진 30.9(10월 최고 5위), 봉화 18.3(10월 최고 2위), 영주 18.0 등

* 2006년 10월 23일 일강수량(㎜) : 울진 35.0

– (2006년 11월 1일) 경북동해안지방에 북동풍이 유입되면서 지형적인 영향으로 천둥번개를 동반한 비가 내려 울진에는 11월 극값을 기록하였음.

* 2006년 11월 1일 일강수량(㎜) : 울진 57.0, 11월 일강수량 최고 3위

– (2004년 11월 10일) 중부지방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영덕, 포항 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렸음.

* 2004년 11월 10일 일강수량(㎜) : 영덕 39.0, 포항 37.5, 영천 37.0

– (2003년 11월 11일) 남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비가 내려 울진, 포항 등 경북동해안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렸으며, 영덕은 11월 극값 2위를 기록하였음.

* 2003년 11월 11일 일강수량(㎜) : 영덕 63.5, 11월 일강수량 최고 2위
울진 36.5, 포항 34.5 등

○ 황사

– (2010년 11월) 10일 고비사막에서 발원한 황사는 산둥반도와 서해를 통과하여 11~13일에 걸쳐 백령도를 시작으로 한반도 전역에 영향을 끼쳤음. 강한 바람과 비로 인하여 체류시간은 짧았으나 농도가 짙어 황사경보가 발표되었음. 황사 농도 관측이 시작된 2003년 이후, 최대농도의 가을철 황사였음.

* 2010년 11월 11~13일 주요지점 최고농도(시간평균, ㎍/㎥) : 대구 783, 안동 1026, 울진 974

– (2005년 11월) 5일 고비사막과 내몽골에서 발원한 황사가 6~7일에 걸쳐 한반도로 유입되었음

* 2005년 11월 6~7일 주요지점 최고농도(시간평균, ㎍/㎥) : 영덕 392

※ 옅은 황사 : 황사로 인해 1시간평균 미세먼지농도가 400㎍/㎥ 미만일 때